

# KIA 뛰는 야구... 조재영 코치가 만든 '시너지 효과'



조재영 코치



‘호랑이 군단’이 뛰는 야구로 높은 곳을 향해 오른다. 포스트 시즌 진출 실패와 주축 선수들의 잇단 부상 등 KIA 타이거즈 팬들에게는

진한 아쉬움이 남는 2023시즌이다.

아쉬움 속에서도 팬들을 환호케하는 순간도 있었다. 나성범과 최형우라는 리그를 대표하는 타자들을 중심으로 9연승 질주를 하기도 했다. 뜨거운 타선의 힘을 더한 또 다른 전력, 스피드도 있었다.

‘도루왕’ 출신의 박찬호와 ‘특급 스피드’ 김도영 그리고 돌아온 ‘호타준족’ 최원준까지 더해 육상부 라인업이 구축됐다. KIA의 주루가 더 위협적인 것은 ‘확률’때문이다. 확률에 방점을 두고 있는 KIA의 주루, 선수들과 조재영 주루 코치의 호흡이 돋보인다.

좋은 주루 뒤 ‘코치가 차려준 밥상에 숟가락을 얹었을 뿐’이라는 선수들. 조 코치는 “젓가락도 준다. 도영이와 찬호는 안 가리고 밥을 잘 먹는다”고 웃음을 터트렸다.

조 코치가 말하는 도루는 ‘5S’다. 스피드(speed), 슬라이딩(sliding), 센스(sense), 스타트(start), 세이프티(safety)가 바로 도루에서 필요한 5S.

조 코치는 “찬호가 다 가지고 있다. 과감한 것도 그렇고 스피드, 센스, 투수를 관찰하는 눈도 굉장히 좋다. 도영이 보다 순간 스피드가 떨어지지만 이런 게 좋다. 원준이는 처음에는 주저하는 모습도 있었는데 안정적으로 나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자신감 잃지 않게 동기부여를 해줬다. 도영이는 작년에 비해 많이 좋아졌다. 관찰하는 습관도 생기고 또 옆에서 찬호가 이야기를 잘 해준다”며 “뛰는 선수들끼리 공유하는 게 중요하다. 내가 이야기하는 것도 있지만 선수들끼리 노하

박찬호·김도영·최원준 ‘육상부’

확률에 방점 두고 주루 플레이

조 코치와 선수들 호흡 돋보여

해마다 투수들 동작 수첩에 메모

우를 공유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원팀으로 성장을 도모하는 부분 그리고 ‘믿음’을 통한 자신감도 중요하다.

조 코치는 “믿음이 생기면 굳이 말하지 않아도 움직인다. 선수와 또 같은 생각을 했을 때 결과가 좋다. 우리 팀이 많이 뛰기도 하지만 성공률이 좋은 이유다”며 “플레이는 선수가 하는 것이다. 내 생각만 가지고 하면 선수가 납득을 하지 못한다. 내 눈에만 보이고 선수에게 안 보일 수도 있고 그 반대도 있다. 나에게 대한 믿음이 있으면 선수들은 팀을 찾을 때 바로 뛰게 된다”고 말했다.

조 코치는 “좋은 눈’을 가지고 있다. 투수들을 세밀하게 보면서 도루 확률을 높이는 게 그의 소문난 실력이다. 타고난 센스도 있지만 노력의 결과라는 게 그의 설명.

조 코치는 “1군에 7년 짜인데 처음에 왔을 때는 안 보였다. 전반기 막바지에 보이기 시작했다. 그걸 매년 메모하고 있다. 그 수첩이 1년에 한 번씩 바뀐다. 세밀하게 투수들의 슬라이드 스텝, 견제 동작 등을 정리한다. 또 견제가 빠르고 간결한 투수, 평범한 투수, 떨어지는 투수 등 나눠서 적어놓는다”며 “KBO에 있는 모든 투수들 자료가 있다고 보면 된다. 시즌이 끝나면 시간날 때마다 수정할 부분 수정하고 다시 적는다”고 말했다.

조 코치만의 노력과 시간이 담긴 ‘특급 수첩’인 셈이다.

조 코치는 “얼마 전 누가 ‘이 수첩 얼마짜리냐’고 물어본 적이 있다. 생각을 안 해봤는데 앞으로 10년은 더 해야 하니까 ‘한 10억쯤 되지 않겠냐’고 이야기를 했다(웃음). 선수들 습관을 다 알고 있고, 매번 적다 보니까 보지 않아도 기억이 난다”고 말했다.

자신만의 데이터로 뛰는 야구를 이끌었지만 무조건 뛰는 것은 아니다.

조 코치는 “사실 더 될 수 있다. 도루 개수만 생각하면 막 될 수 있다. 하지만 우리 팀은 타격이 좋기 때문에 타격과 시너지가 나야 성적이 좋아지는 것이다”며 “레드 라인을 뚫다가 확률이 높아지는 카운트 때 다시 그린 라인을 주기도 하면서 계속 바꾼다. 타격이 좋는데 도루를 했다가 죽으면 팀에 더 안 좋은 것이다. 많이 뛰면서도 많이 사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잠재력을 끌어내는 것도 그의 역할이다. 주루는 ‘밀져야 본전’인 경우가 많다. 과감함이 필요한 만큼 경험을 통해 전방적인 스피드를 높였다.

조 코치는 “잘 뛰기 위해서는 과감함이 필요하다. 안 해봐서 그렇지 해보면 된다. 그게 오히려 (이) 창진이나 (이) 우상이 됐다. 할 수 있다고 할 줄 해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본인들도 ‘어 이게 되네?’라는 생각으로 하게 된다. 선수들 능력치에 따라 리드폭도 그렇고, 뛰어야 되는 상황을 분리해서 이야기해 준다”고 밝혔다.

주루 코치는 경기 중 가장 바쁘게 움직이는 코치다. 실패가 바로 드러나는 자리이기도 하다. 하지만 조 코치는 선수들과 뛰는 게 행복하다.

그는 “나는 선수 생활을 그렇게 오래 못 했다. 선수들과 같이 플레이 할 수 있는 코치가 3루 코치다. 해보고 싶다고 했는데 기회가 왔고, 7년째 하고 있다. 팀 성적을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하고 준비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남자 핸드볼, 준결승 ‘한일전’ 정면대결

파리 올림픽 아시아 예선

한국 남자 핸드볼이 2024 파리 올림픽 본선으로 향하는 길목에서 일본과 정면충돌한다.

홀란두 프레타스(포르투갈) 감독이 이끄는 남자 핸드볼 대표팀은 24일(이하 한국시간)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파리 올림픽 남자 핸드볼 아시아 예선 조별리그 A조 마지막 5차전에서 중국을 28-23으로 물리쳤다.

이어진 카타르와 사우디아라비아의 같은 조 5차전에서는 카타르가 33-24로 크게 이겼다.

5전 전승을 거둔 카타르와 4승 1패를 기록한 한국이 각각 A조 1, 2위로 4강 토너먼트에 진출하게 됐다.

11개 나라가 출전한 이번 대회는 2개 조로 나눠져 조별리그를 펼쳐 각 조 상위 2개 나라가 4강에 진출한다.

B조에서는 일본이 1위(4승), 바레인이 2위(3승 1패)로 4강에 올랐다.

이로써 한국과 일본, 카타르와 바레인이 각각 준결승에서 맞붙는 4강 토너먼트 대진이 확정됐다.

한국은 일본과 27일 오전 1시에 대결한다. 이 경기 승자는 카타르-바레인 경기 승자와 28일 오후

11시 파리행 직행 티켓 한 장을 두고 격돌한다.

1위만 올림픽 본선에 직행하며, 2위는 대륙별 예선을 통과하지 못한 나라들이 모여서 2024년 3월 열리는 최종 예선을 치러야 한다.

대한핸드볼협회에 따르면 한국은 일본과 공식 대회 역대 전적에서 23승 2무 3패로 크게 앞선다. 최근 패배는 2016년 아시아선수권대회에서 당한 것이다.

한국은 이후로는 일본에 4경기(3승 1무) 무패를 기록 중이다.

그동안 한국이 압도적인 우위를 보여왔으나, 이번 대회 조별리그에서 바레인, 이란 등 강호를 잇달아 꺾고 전승을 거둔 일본의 기세가 좋은 만큼 방심은 금물이다.

남자 대표팀이 여자 대표팀을 위한 ‘대리 복수’에 성공할지 주목된다.

일본에 오랜 기간 우위를 보이던 여자 대표팀은 이달 폐막한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결승 맞대결에서 19-29로 충격패 당한 바 있다.

라이트백 김연빈(두산)은 “한국 사람이라면 당연히 가위바위보도 이겨야 하는 한일전인 만큼 각오가 남다르다”면서 “다른 팀을 상대할 때보다 준비를 더 해서 임하겠다”고 다짐했다.

/연합뉴스

## 테니스 스타 할레프 ‘도핑 4년 출전금지’ 판결에 항소

도핑으로 4년 출전 금지 징계를 받은 여자 테니스 스타 시모나 할레프(루마니아)가 항소했다고 영국 BBC가 25일 보도했다.

BBC에 따르면 스위스 로잔의 스포츠중재재판소(CAS)는 “할레프가 기존 판결을 취소하고 제재를 감경할 것을 요청하는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제 할레프의 선수 생명은 CAS 중재 결과에 달려있다.

CAS 패널은 청문회를 거쳐 할레프 측의 주장을 인용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CAS는 청문회 등 일정을 확정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할레프는 지난해 US오픈에서 이뤄진 도핑 검사에서 금지 약물인 록사스타트를 복용한 흔적이 발견돼 잠정적으로 출전 금지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이어 올해 5월에는 그의 선수생체여권(ABP)을 분석한 결과 금지 약물을 투여했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국제테니스청렴기구(ITIA)가 구성한 독립 재판소는 지난날 할레프를 둘러싼 도핑 의혹을 사실로 인정하고 4년 출전 금지 징계를 내렸다.

이에 할레프는 “난 테니스를 지배하는 규칙을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여 왔고, 고의적, 의도적으로 금지 약물을 사용한 적이 없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할레프는 2022년부터 섭취한 보충제가 록사스타트에 오염된 사실을 나중에 알았다며 ‘실수’로 금지 약물 사용이 이뤄졌다는 취지로 항변했다.

할레프는 투어 대회에서 통산 24차례 우승한 스타 플레이어이다.

메이저 대회에서는 2018년 프랑스오픈, 2019년 윈블던에서 총 2차례 단식 우승을 차지했다.

2017년부터 2년 연속으로 여자프로테니스(WTA) 단식 랭킹에서 연달 1위에 올랐다.

올해로 만 32세인 할레프는 CAS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지 못한다면 사실상 은퇴로 내몰리게 될 가능성이 크다.

록사스타트는 빈혈이나 공황에 문제가 있는 환자들에게 처방하는 약물로, 적혈구 생산을 늘리는 기능을 한다. 도로 사이클, 장거리 육상 등 심폐지구력이 필요한 종목 선수들이 이 약물 복용으로 적절되곤 한다.

/연합뉴스



애리조나, 22년만에 월드시리즈 진출

미국프로야구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 선수들이 25일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 시티즌스 벅크 파크에서 열린 내셔널리그 챔피언십시리즈 최종 7차전에서 필라델피아 필리스를 4-2로 꺾고 월드

/연합뉴스

## 여자축구, 오늘 태국과 1차전... 다득점 승리 노린다

파리올림픽 아시아 예선

북한·중국과 한 조...꼭 이겨야

한국 여자 축구 대표팀이 사상 첫 올림픽 본선 진출을 향한 도전을 시작한다.

콜린 벨(잉글랜드) 감독이 이끄는 여자 축구 대표팀은 26일 오후 4시 30분(한국시간) 중국 푸젠성의 사면 이그렛 스타디움에서 태국을 상대로 2024 파리 올림픽 아시아 2차 예선 조별리그 B조 1차전을 치른다.

태국전은 올림픽 본선으로 향하는, 매우 힘겨운 도전의 첫 관문이다.

여자 축구에서는 올림픽이 월드컵보다 오르기 어려운 무대다.

한국은 단 한 번도 올림픽 본선에 진출해 본 적이 없다.

본선에서 올림픽은 12개국, 월드컵은 32개국이 경쟁한다.

2023 호주·뉴질랜드 월드컵의 경우 개최국 호주를 제외하면 아시아에 배정된 본선 진출권은 5

장이었다.

이번 파리 올림픽에서 아시아에 배정된 본선 티켓은 호주·뉴질랜드 월드컵의 절반도 안 되는 2장에 불과하다.

이번 2차 예선은 4개 팀씩 3개 조로 나뉘어 진행되는데, 각 조 1위 팀과 조 2위 중 가장 성적이 좋은 한 팀이 4강전을 치르는 방식이다.

4강 맞대결 두 경기에서 승리한 2개국이 올림픽 본선에 나간다.

한국은 태국을 비롯해 중국, 북한과 B조에 속했다.

‘최악의 조 편성’이라 할 만하다.

한국은 북한에 1승 3무 16패로 열세에 놓여있다. 승리한 것은 2005년으로 벌써 18년 전 일이다.

중국을 상대로도 5승 7무 29패로 열세다. 마지막 무승부 기록은 2015년 맞대결(1-0) 이후 8년 동안 3무 6패를 기록 중이다.

따라서 한국에 이번 태국전 승리는 파리행 도전을 이어가기 위한 ‘선결과제’다.

4개국 중 가장 전력이 약하다고 평가되는 태국

에마저 지거나 비긴다면, 파리행 가능성은 매우 낮아질 수밖에 없다.

중국과 북한도 태국을 ‘1승 제물’로 삼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태국에 ‘다득점 승리’를 거둬야 할 필요성도 크다.

한국은 지금까지 태국과 10차례 맞붙어 7승 1무 2패로 우위를 보인다.

특히, 최근 거둔 4연승 경기에서 모두 3골 이상을 넣으며 무실점 승리를 거뒀다.

최근 맞대결은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조별리그에서였는데, 정실빈(현대제철), 박희영(서울시청), 유영아(서울시청), 전가을(스포츠토토), 최유리(비영민시티) 등 공격수들이 연속골을 터뜨리며 5-0 대승을 거뒀다.

이번 태국전에서도 공격진의 활약이 필요하다. 베데랑 지소연(수원FC), 정실빈을 비롯해 최유리, 강채림(현대제철), 케이시 유진 페어(무소속) 등이 포진한 공격진이 태국 골망을 많이 흔들 수목 파리 입성 가능성은 커진다.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에서는 한국은 20위, 태국은 46위다.

/연합뉴스